

2015 SUMMER Vol. 26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News

박물관풍경

風景





「고승호, 끝나지 않은 항해」 기획특별전

바다 속 엘도라도 ‘고승호’의 숨겨진 이야기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2015년도 첫 번째 전시는 청일전쟁 당시 침몰한 영국 상선 ‘고승호(高陞號)’이다. 고승호는 침몰된 후 지금까지 배 안에 실려 있다고 알려진 수많은 은화와 은괴로 인해 보물선으로 인식되어 왔다. 전설의 황금의 땅 엘도라도를 찾아 모험을 떠난 사람들처럼, 고승호의 보물을 찾는 사람들은 그 꿈을 쉬이 버리려 하지 않고 있다. 고승호, 이 배는 정말 보물선일까?

이번 전시는 ‘보물선’이라 불리는 고승호의 잊혀진 역사에 대해 재조명하고, 고승호를 통해 근대기 조선이 당면한 시대적 상황과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자 기획되었다. 전시는 당시 고승호가 부여받은 임무에 따라 보물선·수송선·상선의 세 가지 테마로 구분하고, 시대를 거꾸로 흘러가는 역순으로 구성하였다. 각 테마의 세부적인 내용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론적인 흐름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되었고, 세 개의 테마가 별개의 주제처럼 내용과 연출 방법은 다르지만 복선과 암시를 통해 결국 고승호라는 한 척의 배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1부 보물선

첫 번째 테마는 ‘보물선’이다. 2001년 본격적인 고승호 인양 작업이 이루어진 시기에 출토된 유물 중에서 수도꼭지 잔편, 벽돌, 유리파편 등과 같은 배의 부속품들과 보물에 대한 소문의 근원인 은괴와 멕시코 은화, 은잔 등을 전시하였다. 또 고승호가 침몰한 후 지금까지 배포된 신문기사와 뉴스 영상을 통해 고승호가 보물선으로 불리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2부 수송선



고승호는 울도 앞바다에서 침몰하기 전까지 청나라 병사 1,200명을 싣고 아산으로 향하던 수송선이었다. 두 번째 테마 ‘수송선’에서는 고승호가 침몰하기까지의 상황과 이를 계기로 발발한 청일전쟁의 과정을 담기 위해, 고승호가 침몰하는 모습을 그린 삽화와 사진, 그 안에서 출토된 도자기편, 아편 파이프, 가죽 신발 등을 전시하였다. 또 부서진

3부 상선



처음 고승호는 영국 기선회사에서 만든 상선이었다. ‘상선’ 테마에서는 고승호의 제작부터 운항까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당시 고승호와 같은 서양 상선들에 의해 개항을 하는 조선과 열강의 세력 탐바구니에 놓인 조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고승호에서 출토된 인도차이나 기선회사 로고가 찍힌 양

식기·포크, 영국에서 생산된 맥주병 등과 서양인들의 시각에서 조선을 묘사한 삽화, 각국과의 조약문 등을 전시하였다. 또 근대기 조선에 들어온 근대 문물과 무역 상사의 모습을 화려하고 신기한 물건이 가득 찬 두 개의 방으로 연출하였다. 관람객은 작은 문과 창문을 통해 방 내부를 보지만, 사실 그것은 거울에 비친 허상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뒤로 속내를 감춘 제국주의의 야욕을 검은 커튼이 드리운 무대 위의 팝업으로 표현하였다.

글 · 김래영(전시교육부)

창간일 2009년 3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우성

기획·편집 전시교육부 이성웅 신은영 **자원봉사자** 엄경미 최정미

표지사진·글 조오다 **제호** 이태용 **디자인·인쇄** 은정문화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옥련동 525번지)

TEL. 032-440-6750 FAX. 032-440-8871

<http://museum.incheon.go.kr> / www.facebook.com/icmuseum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CONTENTS 2015 SUMMER Vol. 26

- 02 전시소개**
기획특별전 「고승호, 끝나지 않은 항해」
- 04 기획기사 I**
잔물 인천, 땀방울의 맛
- 08 인터뷰**
염전이야기_김명국(前 대한염업주식회사)
- 09 야미카툰**
최상의 커플-주안염전 및 부근약도
- 10 기획기사 II**
해방 이후 인천 염전의 공업화
- 12 시간을 달리는 공간 ④**
이름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영아다방’
- 14 청소년 기획**
우리가 알지 못했던 소래포구
- 16 박물관 행사 소개**
송암미술관 진로체험프로그램
송암미술관 특별전
- 18 박물관 소식**
전시, 교육, 행사
- 20 소장유물**
주안염전 및 부근 약도

COVER STORY

사라진 영종도 반길안 마을의 염전들



영종도 염전은 한국전쟁 당시 밀려드는 피란민들의 생계를 해결할 목적으로 1953년에 조성되었다. 영종도의 남서쪽 운남-운서동 일대 40여만 평 염전의 염부는 상당수가 황해도 등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고 영종도는 한때 60여동의 소금창고가 있었던 ‘잘나가는’ 소금 생산지로서 1970~80년대 이곳 염전은 300정보(1정보=9917.4㎡)에 달했다. 하지만 2001년 소금시장 완전 개방 이후 값싼 수입산 소금과 영종도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활주로와 신도시, 골프장에 자리를 내주면서 한쪽은 길하고 다른 쪽은 길하지 않아서 반만 길하다 하여 불려진 반길안 마을의 염전들(건대염전, 흥대염전, 영일염전, 계명원염전, 신흥염전, 부성염전, 금흥염전, 금단염전)은 염전의 부재를 증명하는 사진들만 남기고 영종도에 서 영원히 사라진다.

※ 「박물관 풍경」의 2015년 표지사진 및 커버스토리는 인천의 낯선 풍경을 주제로 합니다.

짠물 인천, 땀방울의 맛

글 • 추교찬(인천대학교 인천학 연구원)

소금은 인간 생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필요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먹어야 하며 심지어 단식 중에도 먹어야 하는 것이 소금이다. 로마시대에 군인의 급료를 소금으로 지급한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샐러리맨은, 소금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하게 취급되었음을 알려준다. 소금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음식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료로 이용되어 왔으며, 화약 제조나 각종 화학품 제조에도 쓰이는 등 그 용도가 무한대이다. 특히 소금을 이용해 김치·간장·된장·고추장·젓갈 같은 장 문화를 발달시켜 온 한국의 음식문화사에서 소금은 대단히 중요하다.

인천 지역은 예로부터 소금의 주요한 생산지였다. 특히 천일제염법이 도입되며 건설된 주안·남동·소래염전으로 인천은 남한 최대의 소금생산지가 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는 인천에 자연도·삼목도·용유도 등 6곳의 염소(鹽所)가 있고 염부(鹽夫)들이 모여 산다고 기록하였고, 『여지도서』(1760년)는 인천의 풍속을 ‘고기잡이와 소금 굽기로 유리해서 농사짓기를 게을리 한다’라고 일렀다.

인천 지역의 소금 생산량을 조사한 1908년 자료를 보면 남촌면이 인천 제염량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남촌면 동·서편에 위치한 넓은 갯벌이 소금 생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었다.

	소유자수	종업자수	염전면적(정보)	생산량(근)	염정수	부옥수
남촌면	25	48	19.0719	1,970,640	161	24
조동면	4	18	6.9320	660,960	50	9
부내면	4	10	3.2028	318,240	26	5
주안면	10	20	2.5228	347,700	20	10
서 면	4	8	2.3317	232,560	19	4
신현면	2	4	0.5825	61,200	2	1
계	49	108	34.6717	3,591,300	281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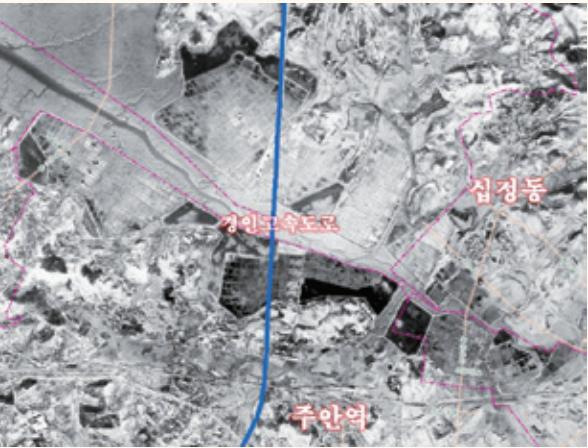
택지부임시재원조사국, 『한국염업조사보고』 제1편, 1908

이곳에서 생산된 소금은 자염(煮鹽)으로 전오염(煎熬鹽)·화염(火鹽)·육염(陸鹽) 등으로 불렸다. 자염은 바닷물을 끓여서(구워서) 만든 소금으로 천일제염법이 도입되기 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소금제조법인데, 현재 태안·고창·순천에서 생산 중이다. 자염 생산에는 바닷물을 농축하는 염정(鹽井)과 이 물을 운반하여 끓이는 부옥(釜屋)이 필요하였다. 소금을 굽는 염부(鹽釜 : 소금 가마솥)은 식로 된 철부(鐵釜)과 진흙·조개껍질로 만든 토부(土釜)가 사용되었는데, 토부가 가격면에서 저렴했지만 내구성은 차이가 많이 났다.

전통적인 소금 생산은 수입염이 등장하며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1885년 일본소금이 부산항에 수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소금은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는데, 전통 소금에 비해 짠맛이 덜했고, 김치를 만들면 쉽게 쉬어버렸다. 때문에 일본인들은 조선소금과 섞거나 포장을 바꿔 판매하기도 하였다. 1898년 중국 산동염이 수입되며 일본염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일본염은 전오염이었고, 중국염은 천일염이었기에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이었다. 일본염과 생산 방식이 유사한 조선염의 운명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조선염 100근 판매가격이 2,522원인데 반해, 중국염은 1,399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이었다. 한국 정부는 물밀 듯이 밀려드는 값싼 수입염에 대처하기 위해 19세기 말 인천에 농상공부가 관할하는 제염시험장 20정보를 설치하고, 석탄을 연료로 하는 등 생산력을 높여야 하였지만 정국의 혼란으로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통 소금은 끈질기게 살아 남았는데, 자염의 맛이 천일염에 비해 우수하였기 때문으로 하충민은 중국 천일염을, 상류층은 여전히 자염을 선호하였기 때문이었다.

주안염전의 건설

우리나라 천일염의 역사는 한국 근대와 함께 시작하였다. 천일염을 생산하려면 넓은 갯벌이 필요하였고, 또 초기 건설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자염처럼 별도의 연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에 생산비가 저렴하였다. 그리고 기후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겨울과 장마철을 제외하면 1년 내내 조업할 수 있어서 생산량에서 비교가 안 되었다. 일제는 조선 침략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소금에 주목하였다. 이전까지 왕실에서 관리하던 염세를 국가 재정으로 분리했지만, 이 정책은 중국 산 천일염이 등장하며 발목이 잡혔다. 그래서 내세운 대책이 중국의 천일제염 환경과 비슷한 서해안



1947년 주안염전의 위성사진



1949년 주안염전출전 : www.flickr.com/norb_faye

에 염전을 축조해 소금을 대량생산하여 중국염과 가격경쟁을 벌인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07년 인천 심정리에 대만식 천일염 전 1정보와 부산 동래 용호리에 일본식 전오염 전 2정보를 만들어 제염 성적을 시험하였다. 특히 주안 시험장은 당시 일본에서도 천일제염 기술이 없었기에 대만에서 야마다(山田直次郎)와 미키(三毛吉郎)를 데려와 염전 건설 및 각종 시험을 맡겼다. 그래서 주안 염전의 제염 방식과 기구는 모두 대만식이 사용되었다. 주안 시험장이 완공되며 9월 23일 재정고문 메가다(目賀田種太郎), 총리대신 이완용, 농상공부 장관 송병준 등 대한제국 주요 대신들이 이곳을 둘러보며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시험 결과 주안 천일염은 품질이 수입염에 뒤지지 않았고, 생산가격도 20전(100근)에 불과하였기에 충분히 수입염을 구축할 수 있다고 예상되었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일제는 조선 내 소금 소비량 3억 근을 충족하기 위해 2,500정보의 천일염전 축조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첫 사업으로 주안염전 확장공사와 평안남도 광양만에 934정보의 천일염전을 건설하였다. 주안염전은 1909년부터 1914년까지 제1~제5구역(100정보)가, 1919년 3월 제6~제9구역이 추가 건

설되었다. 광복 후 한국전쟁으로 한국 최대의 소금 생산지였던 평안도 염전이 북한에 속하게 되며, 소금이 부족해진 남한은 민간의 염전개발을 허용하며 소금 생산에 주력하였다. 이후 소금 산업은 호황을 맞게 되지만,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경쟁으로 염전 사업은 적자에 허덕이며, 이 여파로 주안염전의 1968년 문을 닫고 말았다. 그리고 이 자리는 산업화정책에 따라 1973년 7월 15일 한국수출공단 제5단지(일명 주안 5공단)이 들어섰다.

구 분	면적(정보)	축조 시기
제1구역	1.1	1907년 8월
제2구역	6.6	1909년 6월
제3구역	9.0	1910년 5월
제4구역	14.5	1910년 5월
제5구역	57.3	1911년 7월
제6구역	32.4	1919년 3월
제7구역	46.9	1919년 3월
제8구역	44.6	1919년 3월
계	212.4	

주안염전 각 구역의 축조 시기



남동염전 각 구역의 위치



1940~50년대 남동염전
출전 : 화도진박물관 소장

남동염전의 축조

일제가 염전 부지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토지구입 비용이 저렴하고, 소비지와 가까이 운송 비용이 절감되는 곳이었다. 이러한 기준으로 1907년 실시한 조사에서 인천 남춘면, 서면 등이 꼽혔고, 그 가운데 갯벌 면적이 가장 넓은 남춘면과 조동면을 최적으로 선정하였다.

구 분	면적(정보)	축조 시기
1구역	105	1920년 9월 ~ 1921년 1월 준공
2구역	105	1921년 4월 ~ 1921년 12월 준공
3구역	90	1920년 9월 ~ 1921년 10월 준공

남동염전 각 구역 축조시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총독부는 천일염전 확장 계획을 계속 진행하여, 1920년에는 7년 계속사업으로 평남 귀성(貴城), 평북 (南市), 경기도 남동(南洞)·군자(君子)에 2,600정보의 염전을 건설하려 하였다. 하지만 일본 관동대지진에 따른 건축재정으로 1,241정보만 완성되었다. 이때 완성된 남동염

전 300정보는 총건설비 800,347원으로 1920년 9월~1921년 12월 준공되었다. 남동염전 건설에 투입된 예산의 50%가 제방축조 공사에 소요되었고, 부지매수 비용은 예산의 0.5%에 불과했다.

염전은 남동출장소 본부와 각 구(區)의 현장 사무소 및 부속 건물로 이루어졌다. 제1구 염전은 동춘리 앞 105정보, 제2구 염전은 연수리와 도장리 105정보, 제3구 염전은 논현리 좌측 해안 90정보였다. 출장소 본부가 있던 곳은 논현리 산 69-2번지로 현재 고잔동 동사무소 서쪽에 위치하였다. 출장소는 관사·숙사·창고·청사·헛간 등의 부속 건물로 구성되었고, 부속 건물의 건축 시기는 대부분 1921년 11월, 1922년 7월과 10월로 3차례에 걸쳐 증축 되었다.

1922년 염전 근무자는 총 283명(염부장 13명·염부 270명)이었다. 염부장(鹽夫長)은 염부를 감독하여 직접 소금을 생산하였는데, 한 사람이 보통 15~20정보를 담당하였다. 1919년에 당시 염부장은 모두 일본인이 담당하였고, 염부는 모두 조선인으로 염전 근처 마을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다. 염부는

상용인부와 임시인부로 나뉘었는데, 상용인부는 3월~10월에 걸쳐 8개월 고용되었고, 작업인원은 성업기인 4~6월까지인 10명, 이외의 기간에는 7~8명이었다. 염부장의 하루 임금은 평균 1원 정도였고, 염부는 평균 45전이었다.

남동염전의 운명 역시 주안염전과 다르지 않았다. 1970년 인천시는 남동염전과 김포, 연안부두 등의 매립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였고, 1970년대 중반 수출산업공단이 7공단 부지로 남동염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1978년 1월 12일 건설부 고시 제8호로 인천 내 공업지역 면적이 축소되며 중소기업들의 이전이 불가피해지가, 정부는 1980년 남동염전 지역을 공업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확정하였다. 1985년 시작된 공사는 1992년에 완료되었고, 70여 년 이어온 남동염전 역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다.



소래염전 각 구역의 위치와 부속 건물

소래염전의 건설

일제강점기 소금 소비량은 대체로 52,000만근으로 이 가운데 관염과 자염이 50%, 나머지 수입염이 차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총독부는 소금 자급자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동대지진으로 중단된 염전 확장을 재개하였다. 1933년 1차 증산계획 5개년 계속사업으로 공사비 210만원으로 경기도 소래(356정보) 등 총 1,129정보의 염전을 건설하였고, 또 1935년부터 2차 계획으로 공사비 226만원으로 소래(193정보) 등에 1,100정보를 확장하였다.

소래염전은 소래파출소 본부와 1구·2구·3구 염전과 현장 사무소 및 부속 건물로 이루어졌다. 파출소 본부는 논현리 66번지로 현재 논현동 풍림아

파트가 들어선 곳인데 수인선 소래역 근처에 자리했다. 파출소 본부는 청사, 창고, 의무실, 헛간, 관사, 기름창고 등으로 구성되었다. 1구역은 현재 영동고속도로 서창분기점·월곶IC의 오른쪽 갯벌로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이 들어선 곳으로, 1~7호의 소구역과 저수지로 구성되었다. 2구역은 현재 시흥시 장곡동과 월곶동 북쪽에 자리한 갯벌로, 가장 면적이 넓었다. 3구역은 현재 시흥시 신현동 남쪽 해안가 일대로, 신현동 새우개 마을 앞 저수지를 중심으로 나누어졌다.

주안·남동염전이 공업용지나 주택용지로 그 자리를 내줬지만, 소래염전은 1996년까지 소금을 생산하였다. 그 가운데 1구역은 1999년 6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이 들어서며 그 역할이 바뀌었지만, 시흥시에 속한 2·3구역은 이해관계가 어긋나 개발이 지연된 탓에, 아직까지 염전 생태계를 보전 중이다.

구 분	면적(정보)	축조 시기
1구역	140	1934년 6월 ~ 1935년 12월
2구역	216	1934년 6월 ~ 1936년 12월
3구역	193	1935년 10월 ~ 1937년 6월

소래염전 축조 시기



INTERVIEW

염전 이야기

김명국(前 대한염업주식회사)



인천지역 염전에서 30년 가까이 몸담고 있던 김명국 선생님을 찾아 뵙고 염전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인터뷰하고자 선생님 댁을 방문했다. 선생님을 뵙기 전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어떻게 말씀을 나누어야 할지 걱정 했는데 염전에서의 경험담과 기억과 추억을 되살려서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셨다.

염업에 종사하게 된 계기

평안남도 출신의 이명국 선생님께서는 30세 때 전매청에서 제염기술 양성생을 모집한다는 방을 보고 지원하였다. 하지만 이북에서 내려와서 고등학교졸업을 증명할 길 없으셨다. 다행히 고향 선생님을 만나 사실을 증명 해주어 서류를 낼 수 있었다고 하셨다. 그 당시에도 일자리가 없어서인지 20명 모집에 80명이 와서 경쟁률이 높았지만 다행히도 합격하셨다. 전매청 『제염기술공무원양성소』 양성생 5기생으로 인천염전에서 실습과 훈련을 받고 기술을 익혀 이듬해에 현장배치 후 15정보 내지 20정보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은 15정보를 1년, 30정보를 2년 맡아서 하셨는데 처음엔 요령이 없어 밥 먹을 때 팔을 들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고되었다고 회상하셨다. 그 후 기원(기술직공무원)에서 시작하여 군자, 남동, 소래, 제염사업소, 남동지사장까지 거치시면서 정년 55세를 지나고 생산담당고문직으로 2년간 더 근무하셔서 1986년 57세에 민영화가 된 대한염업주식회사에서 정년으로 퇴임하셨다.

밀가루제방

8·15 해방 이후 모든 물자가 부족한 시절 소금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매청에서 가지고 있는 주안, 남동, 소래, 군자, 서산염전에서 생산되는 양이 국내소비의 5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5분의 4는 수입에 의존해야 했으며 경제사정이 어려워 수입도 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염전적지에 정부지원을 하겠다는 국가시책을 내놓았으며, 원조물자인 밀가루를 제방을 쌓는 인부들 품삯을 주면서 제방을 만들었다하여 민간염전을 밀가루 제방이라 하였다.

인천염전의 다른 이름과 이름에 얽힌 에피소드

인천염전에는 제염시험소가 있었는데 선생님은 제염기술 양성생 시절 이곳에서 교육을 받으셨고 이름에 얽힌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셨다. 제일제당 건너편 수인선 전철역 옆에 개천에 조그만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가운데 받침대가 하나 있어서 독각다리염전이었는데 설과 그 곳이 황무지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고 도깨비가 사는 곳 이라 하여 도깨비 염전으로 불리다가 도깨비가 독갑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다가 독각이 되었다는 옛날 이야기책에 나온직한 재미있는 유래가 있는 염전이기도 하다.

염전에 근무하시면서 힘들었던 점

그 당시 염전에 근무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첫 번째로 비라고 말씀하셨다. 바닷물이 소금이 되려면 일주일이 걸린다. 만약 비가 오게 되면 재빨리 그동안 농축시켜놓았던 해수를 함수에 집어넣어야 한다. 비를 맞게 되면 염도가 낮아져 일이 3~4일 지체되어 많은 손해를 본다. 그래서 밤에 비가 올 것 같으면 집에 가지 못하고 대기했다고 하셨다. 두 번째로 어려운 점은 염전이 있는 해안가는 군인들이 경계에 나서는 곳이라 보안상의 문제로 신분확인을 위해 검열을 받아야 염전에 들어 갈 수 있어 비가 올 때는 한시가 급한데 신분확인인 잘되지 않아 애를 태웠다고 회상하셨다.

아쉬운 점

주안공단을 만들 때 주안 염전은 없애지 말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후세에는 잊혀지지 않을까 걱정스런 마음이셨다. 공업화로 주안염전이 없어질 때 주안염전 바닥에 깔린 웅기조각을 다 회수하지 않고 메워 버려서 후세 사람들이 나중에 발굴한다면 그 자리가 독 굵은 자리라고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선생님의 우스갯말은 왠지 씁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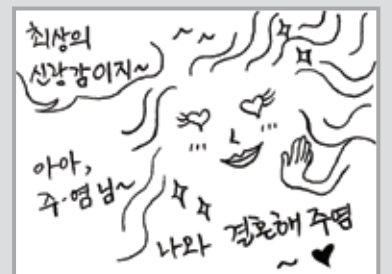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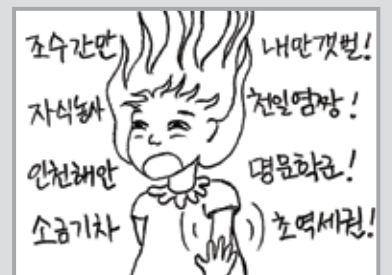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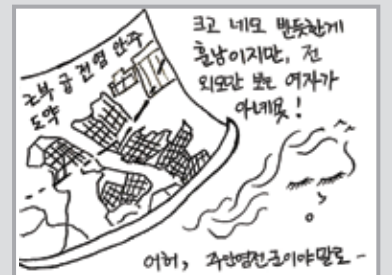
김명국 선생님의 인터뷰를 통하여 인천은 염전과는 뿔래야 뿔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과 인천지역 염전의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 있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 염전이 있었다는 과거정보다는 염전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살아나도록 부두막의 소금을 집어 넣어 그 맛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글·최정미(자원봉사자) | 사진·염경미(자원봉사자)

Yami Cartoon

최상의 커플 주안염전 및 부근약도

만화·조유미(전시교육부)



해방 이후 인천 염전의 공업화

글 • 김용하(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



인천산업단지 위치

산업단지 지정과 현황

인천관내에는 대표적인 남동공단을 비롯하여 10개의 산업단지가 있다. 일반인에게 친숙한 '공단'은 공업단지의 줄임말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공장들이 집산화되어 있는 공업지역이다. 최근 교통표지판 등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는 '산업단지'도 일종의 공단으로 유통시설, 주거, 교육, 문화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포괄적인 의미의 공업단지를 말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공단', '공업단지', '산단', '산업단지'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산업단지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로 구분된다. 2014년말 현재 인천에는 3개의 국가산업단지와 7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공업용지로 개발된 토지는 18,684천㎡(약 566만평)에 이른다. 여기에 9,565업체가 입주하여 141,685명이 종사하고 있다. 공업도시로 상징되는 인천은 해방이후 60년대부터 개발된 공업단지로 인해 특화되었고, 지금까지 산업단지는 인천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표〉 인천산업단지 개발현황					(2014. 12. 31. 기준)
위치	단지명	조성면적(천㎡)	조성기간	입주업체(개소)	비고
1	부평국가산업단지	609	'65. 6 - '69.10	761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4단지
2	주안국가산업단지	1,179	'65. 6 - '74.10	485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5단지, 6단지
3	인천기계산업단지	350	'69. 9 - '71. 1	168	
4	인천지방산업단지	1,136	'70. 3 - '73.12	451	
5	남동국가산업단지	9,574	'85. 2 - '97. 6	6,925	
6	강화하점산업단지	59	'92. 8 - '94. 7	15	
7	인천서부산산업단지	938	'93. 9 - '95.12	256	주물공단
8	청라1지구일반산업단지	194	'97.12 - '05.11	18	
9	송도식식정보산업단지	2,402	'01. 9 - '11.12	41	
10	경단일반산업단지	2,245	'06.12 - '13.12	445	
11	강화일반산업단지	463	'12. 7 - '15.12	-	조성중
12	IHP도시첨단산업단지	1,179	'14. 2 - '17.12	-	조성중
13	서운일반산업단지	514	'15. 4 - '17.12	-	조성중

자료 :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2014한국산업단지총람

공업용지 개발

한국전쟁이후 60년대 정부는 자립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정부의 공업화 정책에 따라 공업용지의 확보는 당면과제가 되었다. 이에 공업단지개발을 위한 근거법을 제정하여 1965년 지금의 서울디지털단지로 탈바꿈한 구로공단이 건설되었다. 이것은 공공기관(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에 의해 계획적으로 공장을 집단화시킨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단지였고, 서울 구로구에 3개, 인천 부평과 주안에 3개의 공업단지가 개발되었다. 현재 일반인이 알고 있는 부평공단은 한국수출산업단지 제4단지이고, 주안공단은 한국수출산업단지 제5단지 및 6단지로 개발된 공업지역이다. 60, 70년대 공업화가 가속화되면서 공업용지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도시화에 따른 대도시 인구집중, 공해문제 등으로 인한 도심내 공장의 이전 불가피성, 농지나 녹지의 확보 등 국토이용상 제한은 상대적으로 신규 공업용지의 확보에 어려움이 컸다. 80년대 들어서서 정부는 일정 규모이상의 신규 공단개발은 해안을

매립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만 공단지정을 허가해 주었다. 60년대 폐염전을 매립하여 주안공단을 조성하였지만 남동공단은 이같은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이같은 한때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금공급처로 널리 알려졌던 주안염전과 남동염전이 어떤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 공업단지로 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안염전과 주안국가산업단지

주안염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천일염을 생산한 염전이다. 구한국정부는 1907년 지금의 십정동 옛 서울제강 근처에서 1정보의 천일염 시험재배에 성공하여 1920년까지 238정보(약 2,360천㎡)의 염전을 만들었다. 당시 소금은 주요산업으로 정부의 전매품으로 관리되었는데 해방후 1961년 소금전매제가 폐지되어 대부분 민영화되었다. 그러나 품질이 좋았던 주안염전은 인천전매서 주안전매지청 관할로 계속 천일염을 생산했다. 1962년8월31일자 경향신문을 보면 하루 48관(180kg)을 생산하여 목표량을 이미 채우고 있고, 당시 소금생산과잉 상황에서 민영염전은 국내용, 주안염전 생산소금은 수출용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주안염전도 대한염업주식회사 소유로 민영화되었으나 1968년 폐염했다.

주안폐염전부지는 1968년 경인고속도로건설 부지로 할애되었고, 공업용지조성을 위해 매립되었다. 고속도로연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인천시는 폐염전부지 남측에 비철금속공업단지로 계획하였고, 북측은 수출산업단지 제4단지(부평공단)을 건설하고 있던 인천수출산업공단에 의해 제5단지로 개발되었다. 또 경인고속도로 왼편에는 민간이 기계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사업진척이 부진하던 비철금속공업단지는 1973년 수출산업공단이 인수하여 제6단지로 완공했다. 현재 주안국가산업단지는 한국수출공업단지 제5단지와 제6단지로, 남구도화동, 부평구 십정동, 서구 가좌동에 걸쳐 있는 공업지역이다. 지역의 주요 산업기지였던 주안염전은 폐염이후에도 공업단지로 그 맥을 이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동염전과 남동국가산업단지

서해안은 자연조건상 천일염 생산의 적합지로 많은 염전이 축조되었다. 주안천일염전 이외에도 인천일대에는 1920년대 남동염전(300정보/2,975천㎡)과 군자염전(575정보/5,702천㎡)을, 1930년대 소래염전(549정보/5,444천㎡)이 축조되어 전국 최대 소금생산지였다. 지금의 수인철도는 이러한 소금을 실어내기 위해 남동염전을 관통하여 설치되었다. 이렇게 많은 염전이 확대 증설된 이유는 일제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자원확보와 군수산업에 필요한 화학원료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 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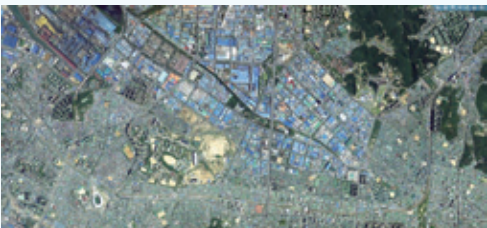
해방이후 1961년 소금전매제도가 폐지된 이후 남동염전은 정부출자 대한염업주식회사 소유로 이전되었으나 1971년 민영화로 ㈜성담이 소금생산을 계속했다.

1980년 7월 14일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도시정비계획에 따라 수도권에서 용도지역 위반 영세공장을 이전시키기 위한 대상지로 남동 폐염전 부지를 결정했다. 폐염전과 주변 공유수면이 많아 공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국토확장과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했다. 처음에는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자체자금으로 수출산업공업단지 제7단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1985년2월 토지개발공사(현재 LH공사)가 폐염을 매입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부지를 조성하였다. 공단면적은 폐염전 43%, 공유수면 38%로 수인선철도를 기준으로 내륙쪽을 1단계(2,600천㎡), 해안쪽을 2단계(6,900천㎡)로 구분하여 1985년 착공, 1992년 부지조성을 완료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있다.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인천산업단지 전체 면적 중 51%에 해당하는 가장 큰 면적의 산업단지이고, 또한 기업체수, 종사자수도 가장 많다. 예전 최대의 소금 생산지였던 남동염전은 폐염전 이후에도 공업단지가 되어 인천의 산업 중심지로 그 맥을 잇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방이후 인천의 염전



주안공단 모습(2014)



남동공단 모습(2014)



이름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영아다방’

영아다방. 좀 나이든 인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이다. 얼마 전까
지 버스노선에도 ‘영아다방 사거리’ 정거장이 있었다. 택시기사는 당연히 알고
있는 곳. 그 ‘영아다방’이 3년 전에 내부를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고 이름도
‘John 179’로 바꾸었다. ‘179’는 번지수.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을까. 50년 세월을 이어온 영아다방이지만 시시각각
현대식 커피전문점과 프랜차이즈들이 생겨나는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

이었다. 일곱 번째 영아다방의 주인이 된 조경희 씨는 ‘영아다방’이라는 이름
을 살리고 싶었지만, 음식점으로 바꾸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오랫동안 영
아다방을 찾는 노인들도 변화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물론 처음에는 이름을 왜
바꾸었냐고 질책하며 아쉬워했다. 하지만 영아다방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젊
은이들도 알음알음 하나둘 찾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영아다방은 어느새 남녀
노소가 함께하는 새로운 공간이 되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손 잡고 와서 차 마셨어.”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중장년층의 얼굴에는 ‘소식적’ 시
절이 묻어난다. 그 옆에는 이 세상을 떠난 그의 아
버지가 오롯이 서 있었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이곳에서 추억을 쌓았던 손님들이 자신의 ‘최털 같
은’ 과거를 되돌아보듯이, 영아다방도 꽤 오랜 시간
을 거쳤다. 다방 안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메
아리처럼 떠돌고 있었다.

가게 입구에는 ‘영아다방’ 간판이 함께 걸려 있다.
영아다방을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한 달에 한
두 명씩은 대구나 부산을 비롯한 지방에서 영아다
방을 찾아오는 이들이 있다. 오래된 다방을 순례하
는 이들이다. 무엇이 그들의 발길을 이곳으로 향하
게 할까. 오래된 공간에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고스
란히 스며있기 때문이리라.

‘John 179’에는 영아다방 시절 쓰던 물건들이 꽤
많다. 조경희 씨는 붉은색으로 튀던(?) 소파를 천갈
이만 했다. 커피잔 일부는 쓰고 있고, 입구에 넣어
진 공중전화기도 그때 것이다. 한겨울 이곳을 찾으
면 난롯불 위에 놓인 주전자와 뜨거운 물에 담긴 커
피잔을 볼 수 있다. 유행에 밀려 투박하지만 아직
씨도 괜찮은 물건이 많았다. 조경희 씨는 영아다방
시절에 쓰던 물건에 대해 애정이 많다. 오래됐다고
무조건 버릴 수는 없는 법. 사람이나 물건이나 퇴물
은 없기 때문이다. 그는 50년 세월을 이어온 영아다
방도 사람이 드나들어야 유물이 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음료도 세대에 따라 다르게 찾는다. 젊은이들은 주
로 달달한 것을 많이 찾고, 어른들은 쌍화차를 시켜
도 걸죽하고 진하면 좋아한다. 이곳 쌍화차는 맛있
다. 조경희 씨 바로 전에, 그러니까 여섯 번째 다방을
운영하던 할머니가 손수 재료를 가져와 쌍화차 만드
는 비법을 알려주었다. 노른자 띄운 쌍화차는 겨울에

많이 나간다.

얼마 전에는 프랜
차이즈 빵집이 주
변으로 옮겨왔다.

그곳에서는 할인
행사도 많이 하
고 대규모로 운
영하다 보니, 주변에 있는

작은 가게는 아무래도 타격이 크다.

그래도 영아다방 일곱 번째 주인 조경희 씨는 마음
한구석이 든든하다. 여전히 쌍화차, 대추차, 유자차,
참차 등을 드시러 오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이
다. 그들의 자식과 손자손녀까지 함께해서 좋다. 대
를 이어 찾는 다방이 그 어디 흔하랴.

다방 안을 휘 둘러 보는데, 어디선가 필자를 찾을
것만 같다. 타임머신을 타고 흘러드는 목소리. “오
○○씨, 카운터에 전화 왔습니다.” 좀 늦는다거나
일이 생겨 나오지 못한다는 전화일까. 휴대폰이 없
던 시절에는 약속시간에 제때 나오지 못하거나 늦
을 때면 어김없이 전화로 연락을 받을 수밖에 없었
다. 조경희 씨는 영아다방 시절 전화를 그대로 쓰
고 싶어 전화국에 알아봤지만, 노선이 달라 쓸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영아다방. 여전히 어른들은 이곳에서 모이고 이곳
으로 친구들을 부른다. “영아다방에 있어. 이쪽으로
와.”

영아다방은 누가 뭐래도 강력하게 사람들을 끌어모
은다. 앉은 자리가 움푹 패이도록 웃고 울며 떠들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 수많은 영영이가 앉았
다 일어난 소파. 그 빈 자리는 여전히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소래포구

글 • 청소년 기자 김나예(고잔고), 김현진(예일고)

멘토 • 문은희(숙명여대)



다들 소래포구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갯벌...? 꽃게...? 회...?

아마도 여러분들 대다수가 맛있는 해산물들을 기억하시고 입맛을 다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래포구에도 아픈 추억이 담겨있습니다. 그 추억은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 치하 당시 소래는 물자 수탈 장소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소래는 그 당시에 염전으로도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은 그 소래염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래염전은 1930년경 공사를 시작해 1934년 첫 소금을 생산한 이후 1993년에 폐염전이 되었습니다. 그 일대 지역의 천일염이 그 당시에 성행해서 한국 최초로 천일제염을 시작한 선구지이기도 했고 한 때 한국 최대의 소금 생지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소래 지역이 얼마나 큰 지역인지 가늠이 됩니다. 염전을 채취하는 방법은 갯벌로 들어오는 바닷물을 이용해서 소금을 생산했고, 만들어진 소금은 수인선 열차

나 인천항을 통해 운송이 됐습니다. 70년대 까지만 해도 전국 최대의 천일염 생산지였지만, 지금은 명성을 잃고 폐허로 남아 있다가 2009년도에 소래습지생태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번엔 소래염전이 잠들어 있는 곳,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찾아가볼까 합니다.



소래염전



소래역사관

소래생태습지공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1동에 소래포구역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갯벌과 갈대들이 무성해서 연인과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볼 곳은 염전 터와 소금 창고입니다. 먼저 염전 터는 약 4000평으로 매우 큰 면적을 지니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염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 창고는 가로 11m 세로 20m 높이 7m로 약 150톤의 소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소금 창고는 1930년대 즈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폐 소금 창고 이외의 창고는 깨끗한 외관을 지니고 있어 매우 신기했습니다.

소래역사관은 남동구 아암대로 1605에 위치해있고 이 역사관은 12년 6월 29일 개관으로 소래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자 건립된 남동구 최초의 공립박물관입니다. 전시실은 2층으로 먼저 올라가시면 소래역 대합실을 시작으로 소래 지명 유래 등 조선부터 대한 제국까지 당시의 모습을 배경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제일 중요한 소래염전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 전시관은 주로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소금 밀대 밀어보기 소금창고 그리고 소금의 차이점을 직접 느끼는 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전시관으로 말미암아 1930~40년대 사이에 소래 지역이 엄청난 소금 지대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취재를 하기 전까지는 소래하면 단순히 각종 해산물이 많은 지역으로 알았지만 두 전시관을 돌아보며 우리 소래 지역이 일제강점기 당시 엄청난 물자 수탈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픈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최대 소금 지대였다는 점에는 대단하다고도 느낄 정도로 소래가 그만큼 컸다는 것도 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은 단순히 신기했다고만 남기면 안 될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단순히 이 글을 보는 독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다른 모든 이에게도 이런 역사를 알려 소래 해산물이 아닌 소래 염전이라는 역사를 남겨 당시의 아픈 역사를 오랫동안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소금창고



큐레이터? 그게 뭐예요?

송암미술관

〈꿈을 그리는 미술관〉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가다

송암미술관에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알송달송미술관(초등 학생 대상), 꿈을 그리는 미술관(초·중·고 학생 대상), 송암예술아카데미(성인 대상), 여름방학교육(가족체험캠프) 등 연령별로 맞춤 프로그램을 만들어 희망자의 신청받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해마다 신청경쟁이 치열하다는 〈꿈을 그리는 미술관〉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다. 미술관 속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 미술관의 대표적 직업인 학예연구사(큐레이터)의 업무를 실제로 체험해볼 수 있다. 프로그램은 연령별 맞춤 활동으로 진행되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위한 '트래블링뮤지움'에서는 유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업무를 체험해본다. 또 중학생들을 위한 '드로잉뮤지움'에서는 손상된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를 체험해보며, 고등학생을 위한 '드리밍뮤지움'에서는 자유롭게 우리만의 전시를 기획해보는 시간으로 기획되어 있다.

〈꿈을 그리는 미술관〉은 청소년이 직접 미술관을 탐방해보고, 꿈을 그려보며, 구체적인 꿈을 품을 수 있도록 꿈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된 만큼 미래 직업선택의 시기가 가까워진 고등학생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다. 이번 호에서는 삼산중학교 학생들이 방문한 날 진행된 '드로잉뮤지움' 과정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학교에서 미리 신청을 하고 예약날짜에 맞추어 송암미술관을 방문한 삼산중학교 학생들은 미술관에 도착 한 다음 작품관람 → 강의 → 실습 순으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먼저 해설사(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면서 미술관의 다양한 전시작품들을 차례로 관람한다. 그 다음에는 교육실로 자리를 옮겨 송암미술관에 근무 중인 학예연구사로부터 큐레이터에 대한 정보 및 미술관에서 하는 일과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업에 대한 강의를 경청한다. 그리고 나서 나면 학생들이 직접 학예연구사로 변신하여 문화재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실습했다. 중학생의 체험과정은 '드로잉뮤지움'으로, 찢어진 고문서를 복원시키는 '보존처리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실습에 사용되는 물품을 배부받고 각자 찢어진 문화재 모형그림까지 나누어 받으면 에듀케이터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세심하게 그림을 관찰하면서 훼손정도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꼼꼼하게 보존처리카드에 작성한다. 그런 후 찢어진 그



림에 덧달 종이에 풀칠을 하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유물을 붙여 훼손된 유물을 최대한 원본에 가깝도록 복원시켜 완성하면 체험프로그램을 마치게 된다.

미술관에서 학예연구사가 하는 일을 직접 체험해보는 이런 교육경험은 흔치 않다. 이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예연구사는 직업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미술관에 방문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학생들에게 좀 더

미술관을 친숙하게 느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교육을 모두 마친 학생들은 미술관의 학예연구사(큐레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알게 되어 매우 좋았다고 하였다. 아울러 학교에서 국사를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술관은 단지 작품을 전시하는 기능에서 나아가 교육이나 행사 등의 기획에서 진행까지 담당하는 학예연구사의 노력을 통해 꾸준히 변하며 성장하는 중이다.

글 | 사진 • 엄경미(자원봉사자)

2015년도 송암미술관 특별전 『계승과 변화, 한국 근대 수묵채색화』



안중식 〈산수도〉 가로 242cm, 세로 76.2cm

인천에서 만나는 근대 수묵채색화의 대가들

주 제 한국 근대 수묵채색화의 미술사적 의의를 고찰하고 아름다움을 감상
전시품 근대 수묵채색화가의 산수도, 화조영모·기명절지도, 도석인물도 등 30여점
일 시 2015년 7월 28일~10월 11일
장 소 송암미술관 기획전시실
문의 ☎ 032-440-6782

1910년대 어수선한 시국 속에서 방에 앉아 한가롭게 젊은 제자들은 가르치는 이들이 있다. 조선 화단의 마지막 대가로 불리는 안중식과 조석진이다. 이들은 벽에 자신들이 그린 그림들을 붙여놓고, 바닥에는 중국 상해에서 건너온 화보를 펼쳐놓고 제자들에게 따라 그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도제식으로 배출된 제자들이 우리나라 동양화가 1세대로 일컬어지는 이용우, 김은호, 박승무, 이상범, 노수현, 최우석 등이다.

올해 송암미술관에서는 안중식, 조석진과 서화미술회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의 작품 30여점을 7월 28일부터 76일간 전시한다. 송암미술관 소장 작품 뿐만 아니라 다른 박물관과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명작들도

함께 전시하여, 근대 수묵채색화단의 시작과 전개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한다. 그림의 소재에 따라 산수, 화조, 영모·기명절지, 도석인물을 주제로 그림이 분류되어 전시될 예정이다. 소재에 있어 조선 시대 그림들과 달라 보일 것이 없으리라 예상하기 쉽지만, 그 안에는 중국과 일본, 서양화법의 영향 등 다양한 외래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산수화에 있어 서양 풍경화의 사생적 요소와 동양화가 1세대들이 이룬 개성적 화풍은 화단의 변화를 감지케 한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미술관에서 근대 수묵채색화의 아름다움도 느껴보고, 그림을 통해 근대 미술의 역사도 공부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 본다.

글 • 윤현진(송암미술관)



주안염전 및 부근 약도

소장유물

1920년, 가로 59.0cm 세로 45.3cm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전인 '주안염전'의 평면도로 도면의 명칭은 '주안염전급부근약도(朱安鹽田及附近略圖)'이다. 지금과 같이 복사기가 보급되기 이전 도면을 복사하기 위해선 일반 종이에 그려진 원도를 음화감광지에 복사하는 기법이 활용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복사된 도면을 청사진(Blueprint)라고 한다. 주안염전 및 부근약도는 원도가 아닌 청사진의 형태로 복사된 것이다.

좌상단에 주안염전에 대한 대략의 개요를 표로 정리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1920년 작성된 도면임을 알 수 있다.

주안염전은 1907년 6월부터 1919년 3월까지 약

12년간 지속적으로 확충되었고 총 공사비는 40만 엔이었으며, 염전에 쌓은 제방의 길이는 총 연장 7리 8정(町),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28km에 달했다. 1907년 9월 처음으로 소금생산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12년간의 생산량 누계는 5,700만근이었다. 1920년 당시 1일 투입되는 염부는 240명이었고, 계획생산량은 1,360만근으로 표기되어 있다. 도면에 나타나는 염전은 1구에서 8구까지 모두 8개이어서 주안염전 축조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면 좌하단부 주안역 인근에 '전매과출장소(專賣課出張所)'라 표기된 건물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당시 주안염전은 조선총

독부 전매국에 속한 주안출장소에서 관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같은 제목의 주안염전 평면도가 2점 더 소장되고 있는데 주변의 지명과 사무소의 명칭이 전매국 주안지국과 전매청 주안지청으로 표기된 것으로 미루어 한 점은 해방 직후에, 다른 한 점은 1951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김명국씨(남구 주안동)가 일괄 기증한 것으로 주안염전의 시기별 변화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글·배성수(전시교육부)